

가족을 위한 조언

## 디지털 흔적과 사진 공유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는 사진 공유를 쉽게 하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친구들의 사진을 보는 것, 격식을 차리지 않은 순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것,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들이 게시한 것에 대해 항상 심사숙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한 사진들이 쉽게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진의 선택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온라인에서 사진을 공유할 때에는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역시 존중해야 함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하세요.

### • 자녀와 함께 한계를 설정하세요.

사진 공유에 관련된 여러분 가족의 가치와 기대에 대해 토의하세요. 위법적 행동 (예를 들면, 미성년 음주나 운전을 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냄)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명백하게 게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특정 사진들 - 예, 비키니를 입은 여러분 딸의 사진이나 카메라 앞에서 무례한 자세를 취한 아들의 사진 - 에 대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진들을 게시한 후 발생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토의하세요. 이러한 사진들이 자녀의 평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일단 자녀가 온라인에 사진들을 게시하고 나면, 자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 이러한 사진들은 친구의 부모님, 대학 입학 상담원, 또는 미래의 고용인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내용물은 쉽게 검색될 수 있고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의도하였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정황에 이러한 사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한 사진은 영구적이어서 언제든지 다시 (다른 사람에 의해) 게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 게시한 사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상기시키세요.

자녀가 사진을 게시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허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게시하려 할 때, 잠시 멈춰서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괜찮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하세요. 사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일에 대해 편안하게 느낄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자녀에게 질문하세요. 자녀가 잘못 판단하여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자녀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사진을 없애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라고 말하세요. 이 개념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가졌던 가족 휴가 사진에서 자녀의 사진을 게시하기 원한다면, 먼저 자녀에게 허락을 받거나 자녀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 이런 유형의 일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본보기가 되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 호의적이지 않은 사진을 게시한 사람과 자녀가 직접 만나 이야기하도록 권장하세요.

온라인에서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부가 되었고 그러한 일에서 빠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온라인에서 사진을 공유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자녀의 친구들이 자녀의 사진들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게시하지 말도록 요청하거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한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게시한 사진에서 나의 태그는 지웠지만, 나는 네가 그 사진을 내려줄 수 있는지 궁금했어. 그 사진은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아니라서 그 사진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되지 않았으면 해.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너무 고맙겠어.” 온라인이 아닌 현실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로 계속될 수 있는 디지털 문제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